

## 독신여성들의 여가체험 이해 Leisure Experiences of Unmarried Women

김이정  
숙명여자대학교

Kim, Yee-Jeung  
Sook Myeung Univ

### 요약

본 연구는 현재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마니아 계층인 독신여성들의 여가 실체를 규명하여 이들의 여가경험의 체험적 맥락과 특성들을 문화기술지 방법으로 규명하고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목적 샘플링 과정을 통하여 4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2회의 개별 면담과 1회의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자료 수집을 위해 참여관찰을 실시하였으며, 신뢰성과 타당성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전사 작업, 코드화, 의미화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개개인의 익명성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독신여성들은 여가를 '즐거움과 흥미' '해방감' 그리고 '자유로움'을 표출시키기 위한 도구이며,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leisure experiences in the lives of unmarried women.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focused on the cultural context of leisure activity of unmarried women. A total of 4 participants were selected through the process of purposive sampling. An ethnographic data was collected by the method of 'experiential description' phenomenologically based data on the leisure experience,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 All verbal data from experiential description, participation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 were tape recorded and later transcribed, and analyzed through constant comparative method based on the phenomenological analysis.

The following findings were the result of this study. three definitional components of leisure experience of unmarried women were identified as follows: 1) enjoyment and interest, 2) escape, and 3) freedom.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스스로 국가와 결혼하였다며 통치에 전념하여 당대의 국민들로부터 'Good Queen Beth'라 불릴 정도의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엘리자베스 여왕, 여성에 독신이라는 핸디캡에 가까운 조건을 가지고도 1998년 스위스 대통령에 당선된 루트 드 라이푸스, 현재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맡고 있는 콘돌리자 라이스, 영국의 국제개발부장관 벨러리 에이모스, 1973년 우리나라 구기 종목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하고 여성 1호 태릉선수촌장을 맡고 있는 이 에리사,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를 쓴 세계 오지 탐험가 한비아 등 이들에게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모두 독신으로 생을 마감했거나 현재 독신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독신 미혼여성 가구주 가구 수의 증가 비율을 보면 1975년에는 10만 여명으

로 전체 가구주 수 7백만에 대한 구성비가 1.5%에 지나지 않았으나 1980년대 2.3%로, 1990년에는 3.3%, 1995년에는 3.5% (통계청, 2006)[5], 2000년에는 14.0% 그리고 2006년에는 15.9%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동아일보, 2006. 7.19)[3].

독신여성의 수적 증가는 주로 점진적인 문화적, 사회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며, 결혼관에도 변화를 나타내게 되었다. 즉,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독신은 단순히 life-cycle의 일시적인 단계가 아니라 life-style의 한 형태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개성이 존중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점점 더 "나"라는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가정 속에서도 나의 희생보다는 현재의 내 삶이 더 중요해 지면서 독신여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결혼관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결혼 역시 필수가 아닌 선택의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전환되고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

	연구 참여자	연령	직업	학력	여가 경력	선호하는 여가 종목
1	A. N. H.	39	전자제품 매장점장	대졸	19년 이상	스킨스쿠버, 수상스키, 골프, 서핑
2	L. K. H.	36	약 사	대졸	8년 이상	스키, 인라인, 스킨스쿠버, 암벽타기
3	L. M. M.	38	약 사	대졸	14년 이상	수영, 스키, 요가, 웨이트 트레이닝
4	O. E. S.	42	회사원	대학원 재학	21년 이상	등산, 스키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영문이니셜로 제시하였음

있다(장현숙, 2002)[4].

이렇듯,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되고,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여가생활이 필요하게 되었고 여가 시간이 증대되면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여성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건강의 차원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육구차원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미혼여성에 있어서 여가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며 현대사회에서의 여성 복지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혼여성이나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독신여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신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여가 사회학적 관점에서 신체적인 여가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 독신 여성들의 여가 문화의 형성 과정을 이루어지는 외형적인 현상과 내재적인 가치 체계를 깊이 있게 규명함으로써 라이프 스타일의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문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 경험의 분석에 있어서 독신여성의 여가 문화 규명에 유용한 이론적 근거와 방법의 틀로써 문화기술지(ethnography)를 사용하였으며, 여가 스포츠에서 게 연구하며 ‘있는 그대로(as it is)’ 파악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독특한 문화를 규명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신여성들의 여가체험의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및 연구 방법론적 근거는 문화기술지(Ethnography)를 사용하였으며, 심층면담, 참여관찰을 통하여 확보된 자료를 분석, 해석하여 결과를 도출 시켰다.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독신여성들의 여가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문화기술지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유목적 샘플링 과정을 통하여 4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인터뷰와 관련된 모든 논의는 개방적 형태의 대화방식으로 연구자와 상호대화로 이루어졌다. 다음 <표 1>은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이다.

### 2.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방법론적 설계는 ‘질적 접근(Qualitative Approach)’이다. 의미와 내용의 본질(nature)이 경험과 체험을 통해 주관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하는 독신여성의 여가체험의 본질과 구조, 즉 특정한 사회-문화적 기반 하에 형성된 독특한 의식구조 및 체험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에는 양적 연구체계보다는 질적 연구체계로서의 방법론적 접근이 보다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 방법의 기본적 설계모형은 질적 접근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 참여관찰의 기법이 활용되었다.

### 3.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독신여성들의 마니아 계층으로 비교적 서로 비슷한 문화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차적으로 가족 주위나 동료, 친구들 사이의 집단에서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2차적으로는 마니아층을 찾아 스노우 볼 샘플링 기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시간과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면담 장소는 대부분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변에서 주로 실시하였으며, 부 정기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면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 1) 심층면담

여가 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절의 특징에 맞추어 시기별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모두 4명의 인원으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2회에 걸쳐 개별면담을 실시하였고 1회의 전체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모두 3회에 걸쳐 심층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주제별 내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질문 그리고, 전체에 대한 질문을 연구 참여자 개개인에게 e-mail로 전달하였다. 면담 시간은 각 개인마다 2~3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장소는 참여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장소로 참여자 ANH는 자신의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강 레저 수상 스키장에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으며, LKH는 처음 근무하고 있는 강북의 모 병원으로 찾아가 근무시간을 파악한 뒤 시간을 정하였으며, 개별면담 모두를 연구 참여자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식사와 간단한 음료를 곁들이며 실시하였다. LMM은 직접 경영하고 있는 약국을 방문하여 편한 시간을 조정하였으며 손님이 비교적 적고 한가한 낮 시간에 면담을 실시하였다. OES는 연구 참여자가 직접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회의장에서 첫 면담을 시작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e-mail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충하였다.

개별면담 이후에 자료를 정리하고 1회의 전체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의 업무 일정과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면담의 한계점은 면담 이후에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간의 개별 전화통화와 e-mail로 보완하였다.

## 2)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참여 연구는 연구자도 관심 있는 연구주제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의 대소사에도 관심을 가져 다양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즉, 다양한 자료수집으로 의미화하고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에 근거할 때 신뢰성과 타당성을 얻을 수 있었다.

참여관찰의 구체적인 관찰 장소로는 여름 스포츠 마니아인 ANH의 경우 북한강 수상 레저장과 대진항의 스킨 스쿠버장에서 관찰하였다. 스킨 스쿠버를 할 때에는 장비를 착용하고 같이 바다 속에 입수하여 동행하였다. 겨울 동계스포츠의 경우 LKH와 LMM은 적극적인 스키활동을 하고 있는 스키장에서 직접 관찰하였으며 이들의 현장관찰노트 작성을 위해 Y 스키장과 P 파크에서 같이 스키를 타고 따뜻한 차와 식사 및 음료를 하면서 참여관찰이 이루어졌다. OES을 통해 북한산 등반을 함께 체험하였고 산을 오를 때 사용되는 장비도 지켜보며 부지런히 관찰하였다.

## 4. 자료 분석

방법 중에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의 기법이 사용되어졌다. 내용분석이란 문자화된 문장 데이터에서 추론을 해 내는 기술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다른 질적 분석과 같이, 내용분석은 인터뷰 데이터, 그리고 다른 종류의 문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자료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고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첫째, 심층면담

에서 면담한 내용을 날짜별로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둘째,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서 내용들을 정리한 뒤에 주제별로 분류하였으며 전문인의 조언을 참고하여 주제를 재분류하는 작업을 여러 번 시도하였다. 셋째, 현장관찰노트와 부가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독신여성들의 여가활동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 1) 전사 작업

문화기술지 연구 같은 질적 연구형태에서의 자료는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으로 연구자의 자료수집 기술은 자료의 진실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하므로, 잘못된 일반화 또는 해석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 2) 코드화(coding)

코드화(coding)란 원 데이터를 연구자의 입장에서 분류하고 나열하기 위한 '세부화 작업(specification work)'을 지칭하며 관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관찰, 정리, 부호화 및 분류화의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피드백(feedback)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3) 의미화(meaning)

두 번째 분석 단계에서는 코드화 작업에 이어 이미 배열된 주제나 분류에 의미를 부여하고 범주화시키는 작업과정이다. 이것은 비슷한 유형의 주제나 개념을 동일한 의미범주로 통합하는 공동화 작업을 의미하기도 한다.

## 5. 자료의 진실성(trustworthiness)을 위한 기법

질적 연구의 또 다른 과제는 신뢰성과 타당성이다. 질적 연구의 방법론에서도 심층면담과 관찰이 신뢰적이고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문서 분석의 내용이 타당하게 분석되었는지, 연구 결과가 자료에 근거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에 맞게 기술되었는지가 주요관건이다. 특히, 문화기술지의 경우에는 문화, 문화전체, 혹은 많은 문화를 연구 참여자에 의해 결과물을 산출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김병준·오수학, 2004)[2].

### 1) 다각도 분석법(triangulation)

질적 연구에서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사용하여 주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비 참여관찰과 체험기술서를 이용하여 부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다각도 분석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 2) 구성원간의 검토(member check)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세 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 첫째, 집단면담 후에 모든 내용을 전사 작업을 실시하여 정리된 내용을 연구 참여자가 의도했던 내용과 같은지를 확인하였다. 둘째, 전사된 내용을 수차례 정독하면서 각각의 주제별 분류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개념을 목록화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연구 참여자에게 보여주고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셋째, 참여관찰과 현장관찰노트에 기록한 내용들을 연구 참여자에게 보여주고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 3) 동료 검토(peer debriefing)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료 방법과 절차가 적합했는지, 수집된 자료가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타당했는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주제별 개념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개념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기준으로 제대로 범주화가 이루어졌는지 동료 연구진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여러 번에 걸쳐 재분류하여 최종 작업이 이루어졌다.

## 6. 연구 수행과정에서의 윤리적 고려

문화기술지와 같은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간에 개인적인 접촉이 사생활 깊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Merriam, 1998)[6]. 즉,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간에 쌍방이 합의된 공식적인 동의서에 사인을 통해 연구자의 윤리성에 대한 인식과 연구 참여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체제가 마련하도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의사가 비교적 뚜렷하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여가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소견과 함께 여가활동 경험이 풍부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에 동의한 참여자들은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에 적극성을 보여주었으며, 집단면담을 통해 서로를 관찰하고 이해하면서 충분한 라포가 형성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연구에서 도움의 손길을 놓지 않은 참여자들에게 개개인의 익명성을 최대로 보장하려고 심혈을 기울였으며 특히,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많은 배려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여가참여의 독특하고 중요한 세력으로 부각하고 있는 독신여성들의 여가수행 경험의 체험적 특성을 ‘문

화 기술적 연구(ethnographic research)’의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독신여성들의 여가경험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하여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의 방법을 통하여 문화기술지 연구 특성에 근거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된 의문점은 여가의 정의에 관한 점이었다. 내가 매일 같이 수행하고 있는 여가란 정말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고정화된 또는 이상적이고 절대적인 여가관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여가에 관한 정의는 체험적 요소에 바탕을 둔 것으로 체험적 관점에서 여가에 관한 정의를 분석해 볼 때 몇 개의 공통된 요소로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 1) 즐거움과 흥미

우선적으로, 여가의 정의적 요인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가장 독특한 요소로는 비 여가활동 시의 특성과 구분되어 질 수 있는 점들이 나타났다. 즐거움과 흥미라고 지칭할 수 있는 범주는 독신여성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정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었다. ‘즐거움’과 ‘즐거워’ 그리고 ‘흥미로운’이라는 표현은 여가가 다른 활동과 구별되어 질 수 있는 특성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여가는 우선적으로 내가 하고자하는 것을 즐겁게 참여하는 기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 OES에게 있어서 여가활동으로서의 동반은 단지 즐겁고 좋은 것일 뿐이다.

그때 당시는 취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산에 다니는 것은 내가 즐기는 것 중에 '이건 유일하게 평생 내가 다닐 거다' 생각하면서 계속 산에 다녔었던 거고, 대학 때도 그렇고, 졸업해서도 그랬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랬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냥 즐겁고 좋은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LKH의 여가체험 기술은 즐거움이야말로 여가의 주요한 목적이자 행위 그 자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단 편(fun)이죠, 재미있어요. 그걸 하면 또 다른 것에 열중할 수 있죠. 저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열정적인 약사로 만들어 주었죠. 직장 스케줄 맞추고 대회에도 나가고 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대회에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매년 해마다 '이제 대회 그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재미있어서 계속 나가죠. 설사 입상하든지 말든지간에 재미있어서 가요. 그런 거 보면 진정한 여가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번에는 나가지 말아야지, 나가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막상 시즌 딱치고 훈련 들어가면 너무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서 나가요.

### 2) 해방감

체험적 시각에서 여가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또 하나는 해방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란 당신의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연구 참여자 ANH는 “여가란 나를 긴장시키는 것이 아닌, 이완시켜 주는 그 어떤 것이다”라

고 즉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독신여성들에게 있어서 여가활동은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들은 여가활동 자체를 삶의 돌출구 또는 분출구라고 여기고 있었다. 독신이라는 사회문화적 특성은 그들의 생활에서 여가가 가지는 비중이 막중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LKH에게 있어서 여가는 일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벗어남으로 인한 해방구이다.

사람이 일만 하고 살 순 없잖아요. 뭔가에 돌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으면 어느 쪽으로든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 막혀있다면 스스로에게 해가 되도록 폭발할 수밖에 없죠. 돌출구는 내가 여기서 스트레스 받으면 저기서는 풀어야 하는 것 같아요.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긴다.'고 하잖아요. 그런 돌출구는 항상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돌출구가 여가라고 생각해요. 일단 자연에 나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스키를 타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이 안나오. 막 화났다가도 스키를 타면 다 잊어버려요. 돌아오면 화났던 것이 원점으로 가긴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럼 좀 누그러져요. 그냥 넘어갈 수 있죠.

### 3) 자유로움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여가를 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사람이 원해서 하고자 하는 그 무엇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그 무엇을 하는 것 등등의 자발적인 선택 혹은 자유스러움의 의지로 정의하고 있었다. LMM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활동을 통해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닌데 전 여행인 것 같아요. 일 년에 한 번 제가 저한테 주는 자유스러운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하고 경치보고 호텔에서 먹고 자고 놀고 그래요. 그것 만해도 아무런 방해로 안 받으니까 그것 만해도 가족을 떠나서 일터를 떠나서 혼자 있을 수 있잖아요...  
1년에 한번 주는 자유스러움의 보상 괜찮죠. 주로 여름에 이루어지긴 하는데 여름에 여건이 안 됐을 경우에는 추석연휴라든지 설 연휴라든지 그럴 때를 이용해서 꼭 다녀오는 편이죠...

독신여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측면은 그들의 생활 스타일의 특성상 더욱 더 부각되고 있었다. 결혼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정이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특수성 때문이다. LMM의 스키여정은 자유스러움, 즐거움 및 만족, 해방감 등의 복합적 경험의 경험체이다.

스키 같은 경우는 겨울시즌이 되면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꼭 가요. 더 가고 싶지만 약국을 봐야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매주 가니까 만족해요. 그리고 주말이 서서히 다가오면 눈앞에 눈이 보여요. 환희의 순간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떠오르죠. 나만의 자유스러운 여정을 갖는다는 것은 내 삶의 축복이자 일상의 탈출 작전 같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독신여성들은 결혼보다는 개인적인 이상과 자신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구명숙·홍상욱, 2004)[1].” 사회학적 의미에서도 독신여성은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를 누리하고자 하며 자기 직무의 조건과 내용을 통제

할 수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장현숙(2002)[5]의 연구에 따르면, 독신여성들은 아직 자신의 반쪽(배우자)을 찾지 못한 매력 없는 사람들로 비쳐지지 않고 주어진 자유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멋진 독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이는 독신생활의 자유로움에 대한 자신감과 매력에 관한 표출이라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 참여한 독신여성들의 여가경험의 전반적 국면을 조망하여 볼 때, 독신생활에서의 이러한 자유로움의 추구는 바로 여가활동의 참여와 경험의 장에 극대화 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VI. 결론

결론적으로 볼 때, 독신여성들에게 있어서 여가행위가 하나의 체험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들이 수행하는 활동 그 자체의 인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인식의 다양한 요소들은 여가라는 하나의 경험체를 정의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구 참여자들의 체험적 인식을 분류한 즐거움과 흥미, 해방감, 자유로움의 체험적 인식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표출되었으며, 여가라는 경험행위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요소들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세부적 체험의 인식 요소들은 우리가 일상적 몰입에서 인식체계로 이해될 수 있는 일반적인 경험들이 아니다. 개념적인 전제나 일상의 인식체계로는 확연하게 파악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지금 여기에서(now and here)’ 느끼게 되는 ‘생생한 여가경험(lived leisure experience)’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요소들은 여가수행에 있어서 개개인의 주관적 및 질적 양태들을 반영해 주는 살아있는 생생한 체험의 내재적 덩어리들인 것이다.

세 개의 정의적 요소들은 독신여성들의 여가경험의 본질성과 여가문화의 구성 체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가문화의 맥락관계(context)를 추적 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었다.

### ■ 참고 문헌 ■

- [1] 구명숙·홍상욱. “독신생활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여성연구정기간행물, 67(2), 199-233. 2004.
- [2] 김병준·오수학. 체육학 연구법. 무지개사. 2004.
- [3] 동아일보 2006, 7, 19
- [4] 장현숙. “독신의 심리적 성향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2002.
- [5] 통계청. “통계로 본 여성의 삶”. 2006.
- [6] Merriam, S. B.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 A qualitative approach. San Francisco : Jossey-Bass. 1998.